

한·중·일 세계농업유산 워크숍 개막

제주밭담 심의 앞두고 관심 집중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농업유산 보존관리와 연계협력을 위한 한중일 워크숍이 25일부터 4일간 일정으로 제주에서 막이 올랐다.

이번 워크숍은 제주밭담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열리고 있는데다 세계농업유산 등재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가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5일 한·중·일 워크숍 참석자들이 제주시 구좌읍에서 제주밭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강경민기자

4일간 제주서 열려... 국제저명인사 대거 참가 워크숍 참가자들 첫날 구좌읍 일대 현장 답사

국제적권위 타케우치 심의위원 오늘 기조연설 "또, 세계농업유산 선도... 한·중·일 연계 기대"

이런 한중일 국제워크숍에서 단연 주목을 끄는 인사는 타케우치 가즈히코(사진) 동경대 교수다. 그는 현재 유엔대학 상급 부학장이자 평화연구소장을 겸임하면서 세계농업유산 등재 심의 위원으로서 국제적으로 전문성과 인지도,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는 인사다.

타케우치 교수는 이번 한중일 워크숍 참석과 제주밭담 등을 둘러보기 위해 25일 제주를 찾았다. 그는 26일 워크숍에서 '전통적 농업과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의 발전'을 주제로 개막을 알리는 기조연설을 한다.

타케우치 교수는 사전에 공개된 기조연설에서 아시아 고대농업의 기원과 아시아의 전통적 농업의 다양성, 그리고 전통적 농업의 위협과 과제에 대해 진다했다.

그는 "전통적 농업이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따라 급속히 소실되고 있다"며 "전통적 농업 보전이 생태적·문화적 유산으로서 인류의 미래에 반드시 필요하며,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농업 보전이 생태적·문화적 유산으로서 인류의 미래에 반드시 필요하며,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통적인 농업시스템의 보전·관리에는 문화의 다양성과 지역농가의 경제성 보전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2002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발안에 따라 전통적인 농업시스템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농업유산시스템이 발족했다"고 강조했다.

타케우치 교수는 "세계농업유산은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의 농업을 전망하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유엔대학은 세계농업유산 발족 때부터 FAO와 협력해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지역에서 후보지를 제안하고 등재신청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국에서 2곳(제주밭담, 완도 청산도 구들장)이 등재 신청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아시아에서의 세계농업유산 등재지는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유류업이 건안해 온 것처럼, 다양함과 장대한 역사를 자랑하는 농업을 보유한 아시아가 중심이 돼 세계농업유산을 리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아시아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자연환경과 공동된 농업 기원을 지닌 한중일 3개국간의 긴밀한 연계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한국에서 2곳(제주밭담, 완도 청산도 구들장)이 등재 신청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아시아에서의 세계농업유산 등재지는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유류업이 건안해 온 것처럼, 다양함과 장대한 역사를 자랑하는 농업을 보유한 아시아가 중심이 돼 세계농업유산을 리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역농산품의 브랜드화, 6차산업화에 따른 농산품의 부가가치 향상, 그린 투어리즘과 생계의 다양화에 관한 것이다.

타케우치 교수는 "세계농업유산의 인정기준에도 각국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 평가기준을 반영해 앞으로 세계농업유산이 더욱 발전하는데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에서 2곳(제주밭담, 완도 청산도 구들장)이 등재 신청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아시아에서의 세계농업유산 등재지는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유류업이 건안해 온 것처럼, 다양함과 장대한 역사를 자랑하는 농업을 보유한 아시아가 중심이 돼 세계농업유산을 리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아시아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자연환경과 공동된 농업 기원을 지닌 한중일 3개국간의 긴밀한 연계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한국에서 2곳(제주밭담, 완도 청산도 구들장)이 등재 신청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아시아에서의 세계농업유산 등재지는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유류업이 건안해 온 것처럼, 다양함과 장대한 역사를 자랑하는 농업을 보유한 아시아가 중심이 돼 세계농업유산을 리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숨비소리, 바다 건너 세계로

해녀축제 윤곽... 경연·소통·체험·힐링의 장으로

제6회 제주해녀축제가 '숨비소리, 바다 건너 세계로'를 주제로 열린다.

제주해녀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 20일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10월12-13일까지 이틀

간 해녀박물관 및 구좌읍 해안일원에서 개최되는 제6회 제주해녀축제 주요 프로그램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제6회 제주해녀축제는 '숨비소리, 바다 건너 세계로'를 주제로

로 경연의 장, 소통의 장, 힐링의 장, 체험의 장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해군악대와 기마대, 출향해녀, 일본아마, 해녀가 참여하는 거리퍼레이드, 해녀테악수영대회, 해녀물질대회, 해녀북타기요제, 해녀민속경연, 숨비소리 창작가요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등이 열리는 경연의 장을 비롯 3대 해녀 선발, 해녀노래공연, 일

본아마공연, 지역동아리 공연, 희망의 불꽃 쇼, 해녀영상 상영 등 소통의 장, 해녀 굿, 푸다시·넝름, 소망기원띠 달기, 희망 페인팅 등 힐링의 장과 수산물 시식회, 바닷잡이 체험, 어린이와 함께하는 해녀어장 만들기, 해녀날 등 체험의 장이 마련된다.

문은 710-7770. 오은지기자

행정체제개편 도민보고회 확대 시행

8월말까지 직능단체별로 찾아가는 설명회 TV특별기획대담 보고회·정당별 간담회도 행정시장 직선제만 강조해 여론 호도 우려

제주자치도가 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시장 직선·의회 미구성안)에 대한 도민설명회를 이달 말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9일까지 개최된 행정체제개편 지역별 순회보고회에 이어 이달 말까지 직능단체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보고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도민들을 대상으로 TV특별기획대담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도민 의견을 확대, 수렴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지역순회 도민보고회를 통해 도민들에게 행정시장 직선제를 설명했지만 계속되는 가뭄과

복 상황 등으로 인해 도민참여가 다소 저조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민의견 수렴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 8월말까지 직능단체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 행정시장 직선제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다양한 도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도민들이 각 가정에서 TV 시청을 통해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TV특별기획대담 보고회를 마련하고 민주당 제주도당 등 도내 각 정당과 도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TV특별기획대담보고회 첫 방송이 나가는 27일 일정에 맞

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도민여러분과 함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라는 책자를 각 가정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도민의견 수렴방법 등에 대해 도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도민설명회에서 직선행정시장의 권한 강화 등만을 강조하고 있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9일 개최된 지역순회 도민보고회에는 총 12회에 걸쳐 1900여명이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102건의 질문과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총 102건 중 행정시장직선에 대한 의견제시가 50건(49%)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초자치단체부활 16건(15.7%), 행정시 권한 강화 7건(6.9%), 읍면동 기능 강화 2건(2%), 기타 27건(26.4%)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했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상수도 원수 노로바이러스 불검출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는 식중독 사고 등으로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이에 대한 상수감시관리체계 구축

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도내 정수장 16개소의 원수에 대해 노로바이러스를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노로바이러스

검사는 지난 7월부터 2개월에 걸쳐 시료를 채수, 검사했으며 검사 결과 pH, 탁도, 대장균군도 먹는물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의 750-7950. 오은지기자

뉴스-in 남은 일주일... 몇명이나 더 올까? 최고기록 기대감 증폭 고입 검정고시 전원 합격 "가뭄극복 직원 격려" ○...8월들어 24일까지 93만여 명의 내·외국인관광객이 제주를 찾아 역대 월 최고기록 경신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몇명이 될지 관광시장 안팎에서 관심.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제주를 찾은 총 관광객은 7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월 단위로는 전년동월비 19%가량 급증함에 따라 8월 최종기록은 사상유례없는 110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기대. 지금까지 월별 역대 최고기록은 전월 105만여명이며 8월 예상되는 최종실적은 당분간 깨기 힘든 기록으로 남을 전망. 김성훈기자

제6회 녹색환경가꾸기 및 제주물사랑운동전진대회. 인사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때에 옥체안강을 빕니다. 아뢰올 말씀은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부설 노인대학원총동문 제주사랑운동회에서는 제6회 녹색환경가꾸기 및 제주물사랑운동전진대회를 다음과 같이 갖고저 하오니 공사다망 하신줄 사료되으나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시 2013년 8월 29일(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제주시민회관 ■ 연락처 회장 안용남 011-697-0300 총무 김영자 010-2390-0626 재무 신숙자 010-4049-3959 2013년 8월 일 사)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부설 노인대학원총동문 제주사랑운동회 회장 안용남

「新 탐라순력도 기행」 행사 추진 계획. 부제: 탐라민선 1702, 여러분을 속중 28년으로 초대합니다. 1. 행사 목적: 모듬 제652-6호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관광 자원화 함으로써 문화재를 매개로 한 문화재적 가치 창출. 2. 행사 개요: 가. 일 시: 2013. 9. 7(토) 15:00~(그리기는 14:00~18:00) 나. 장 소: 제주목관아, 관덕정, 향사당, 용연 등. 다. 주최/주관/후원: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문화재단, 제주대학교/문화재단. ※ 주의사항: 행사장소가 문화유적지이므로 행수를 제외한 일체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버리거나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3. 일 정 표: 시간, 내용, 비고. 4. 안내 사항: 가. 그리기 대회 - 사생화 그리기: 도화지, 임화그리기: 2절지. ※ 부제, 도화지, 2절지는 주최 측에서 제공하나 그리기 도구(붓, 물감, 크레파스, 칼라펜, 이빨, 도화지)는 참가자가 준비해야 함. 나. 기상상태 등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음. ▶ 문의사항: 064-723-7755 http://www.moonhwasigoo.com 관리자 참조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반 질환자 대상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국내 주요 종합병원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반질환자를 대상으로 복합제 임상시험에 참여할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1. 참여대상: 만 18세 이상 만 80세 이하의 성인 남녀로 - 고혈압, 고지혈증 동반 질환자로 고혈압 약물, 고지혈증 약물을 복용 중인 분 - 또는 고혈압, 고지혈증 약물 미복용시 혈압(수축기 혈압/이완기 혈압)이 130mmHg / 80mmHg 이상에서 180mmHg / 110mmHg 미만, LDL-콜레스테롤 100mg/dl 이상, 중성지방 400mg/dl 미만인 분 - 또는 그 외 진료를 통해 기타 조건이 만족되는 분. 2. 참여에 따른 제공사항: - 혈액 및 뇨검사 / 신체검사 / 심전도 검사 / 24시간 혈압 검사 - 임상시험용의약품 제공 - 진료비 및 검사비 제공 / 정규 방문시 소정의 교통비 지급. 3. 참여 기간 및 방문횟수: 선별검사로부터 임상시험 종료시까지 총 14주이며, 이 기간 동안 총 7회 병원 방문 (경우에 따라 참여 기간 및 방문 횟수 변경됨). 4. 연구기관: 국내 주요 종합병원. 5. 연락처: 본 임상시험에 참여 의사가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요. 상담원(콜센터) 연락처 : 070-4495-1096

전복삼계탕전문 성우名家.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용두암 해안도로 명물로 우뚝서있습니다. 메뉴: 전복삼계탕, 뚝배기, 고등어조림, 한치회, 한치들회, 전복물회. 스페셜 메뉴 버섯전골 + 옥돔. ※피로연, 돌잔치 단체예약 환영(370석), 주차시설완비※ 음료 2명 무료제공 (한 테이블당). 성우명가 T. 746-0003 HP. 010-4690-1301 제주시 용두암동 222-1 (여명3리) 용두암 해안도로 마르텔로 옆